

# 화계사 소장 원통궁던탑도와 그 상징의 미학\*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조교수

- I. 서언
- II. 묘련사와 『제중감로』
- III. 원통궁던의 상징미학
  - 1. 상하의 성현과 중생
  - 2. 중심과 대칭의 장엄
- IV. 결어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6일 “화계사 탐다라니목판 특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화계사 소장 탐다라니판 원통궁던과 그 상징의 세계」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한글요약>**

이 논문은 화계사에 소장된 원통궁뎡탑도와 그 상징의 미학을 살펴본 글이다. 원통궁뎡탑도는 19세기 후반 묘련사(妙蓮寺) 결사의 법려(法侶)들에 의해 조성되었고, 그들은 관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는 수행을 하였으며, 그 신앙심에 관음보살이 응현하여 가르침을 내려 받아 그것을 펼쳤는데[承宣], 탑도목판의 조성과 더불어 『제중감로』의 편집으로 이어졌다. 10품으로 구성된 『제중감로』의 주 내용은 관음보살의 신묘력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으로, 그 특징은 자각과 자비행의 실천, 감응사상과 성기사상의 융합, 다양한 종파 사상의 융합, 중생구제의 실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원통궁뎡탑도의 상징미학은 탑도의 형태 구조에서 불교의 사상을 미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첫째는 탑도를 구성하고 있는 옥개와 탑신을 상하의 성현과 중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상의 정점에 ‘옴’과 ‘람’을, 하부에는 중생의 발원과 좌우 천룡의 외부를 장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심과 대칭의 장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의 ‘천’자와 마지막 보회향진언의 ‘흠’자가 중앙에서 끝맺고 있다. 또 좌우의 천룡은 옹호와 齋者의 作福을 짓게 하는 것이고, 하부에는 중생의 참회와 관음의 자비가 불신의 兩足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것을 확인해준다.

한글로 음을 달아 원통궁뎡탑도목판을 조성한 것은 대중들이 그것을 모셔놓고 관음의 성호를 염하며 발원하는 신행과 사후의 증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제어 : 원통궁뎡탑도(圓通宮殿塔圖), 묘련사, 제중감로, 삼성암, 감로법회, 정학영(正信, 普月正觀), 유성중(葆光普圓)

## I. 서언

화계사 소장 원통궁뎃탑도목판(圓通宮殿塔圖木板, 이하 원통궁뎃)<sup>1)</sup>은 19세기 말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신행운동을 펼쳤던 묘련사 결사 범려들에 의해 제작 보급되었다고 보인다. 묘련사 결사는 감로법회<sup>2)</sup>라고도 하였는데, 1872~1875년에 걸쳐 7차 11회의 감로법우를 감로법주 보월 거사 정관에 의해 송출된 법문을 『관세음보살묘응시현제중감로』(이하 『제중감로』)로 집성하였다. 관세음보살이 오묘하게 시현하여 감로로 중생을 구제한 내용으로 구성된 『제중감로』를 집성한 묘련사 범려들은 이 원통궁뎃뿐만 아니라, 비로자나장엄장대누각탑도목판(毘盧遮那莊嚴藏大樓閣, 약칭 장대누각)과 지장본원경 및 문수반야경탑도목판을 제작 보급했다고 보인다.<sup>3)</sup> 이 원통궁뎃은 명칭에서 보이듯이 묘응시현과 이근원통의 개념이 담긴 관음보살과 그 본사를 봉안한 궁전이다. 이 궁전은 천수주의 계청문과 발원문, 청양성호와 본주 신묘장구다라니[대비심주]와 대비심주를 활용한 도량엄정의 사방찬과 도량찬, 참회계주·진언과 회향진언을 활용하여 건립되었다.

그간 탑도 목판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제작과 유통의 역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이 글은 화계사 소장 원통궁뎃이 보여주고 있는 구조와 그 상징이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살펴봄에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원통궁뎃의 출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판포(判布: 판각하여 배포하다는 의미) 그룹인 묘련사와 그들의 『제중감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원통궁뎃의 상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탐색해 볼 것이다. 상·하로 자리하고 있는 불과 중생의 언설, 주전 내궁을 장엄하고 있는 천수주 관련 찬사와 발원, 진언 등의 대조와 구성미 등을 일별하겠다. 마지막으로 원통궁뎃

1) 탑도의 좌측(印刊하면 우측) 상단에 기재된 명칭은 ‘원통궁뎃’인데, 그동안 탑다라니 등으로 통칭되던 용어는 일제 이후에 사용되던 것으로 그 이전부터 쓰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탑도(塔圖)’ 또는 ‘탑도 목판(木板)’으로 명명하자는 제안(리송재, 「서울 화계사 塔圖 목판의 판각과 유통」, 『미술사 연구』 40(미술사연구회, 2021.06. p.246)을 따라 본고에서는 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원통궁뎃, 원통궁뎃탑도, 원통궁뎃탑도목판을 상황에 따라 기술한다.

2) 『감로법회』는 1882년 중추에 보광거사가 찬술한 결사문, 발원문, 성념명, 사규로 구성되었는데, 『한국불교전서』 12책에 실려 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아카이브 신집성문헌에는 목판본이 실려 있다. 후대 이 감로법회에 금강경이 합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감로법회의 영향은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3) 이갑봉,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에 나타난 불교사상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2.

4) 이승희, 「조선 말기 經塔圖의 조형적 연원과 제작 배경」, 『미술사연구』 40(미술사연구회, 2021.06), pp.275-280; 리송재, 앞의 논문, pp.246-252.

의 역할과 활용을 찾아봄으로써 글말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 묘련사 결사와 『제중감로』의 구조와 사상을 살펴보고, 원통궁전의 외관과 내궁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천수주의 활용과 의미를 구조 미학적인 관점에서 살필 것이다. 천수주는 한국불교에서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묘련사 결사 범려들은 『법화경·보문품』이나 『능엄경』, 『화엄경』 등의 경설을 통해, 관음보살의 대자비가 중생의 바람에 응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선교방편을 이 땅에 시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묘련사 범려들은 관음보살 칭명을 중심으로 신행하였고 일제시대에는 ‘신흥불교’적인 입장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sup>5)</sup> 이들은 관음보살의 칭명에서 나아가 천수다라니로 원통궁전을 판포하여 관음의 자비를 시현하였다. 원통궁전의 상징 세계와 그 미학은 외형적인 측면에 머물지 않고 신행의 안팎에서 빛나고 있다. 그것들을 탐미해보도록 하자.

## II. 묘련사와 『제중감로』

### 1. 묘련사 참여 거사들

논자의 관심이 묘련사(妙蓮社)에 가게 된 것은 화계사 소장 원통궁전과 장대누각을 제작하여 펴냈기 때문이다. 묘련사는 『묘법연화경』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재가 거사들의 결사체였다. 묘련사 결사에 대한 정보는 묘련사 결사의 범려(法侶, 범우)들의 정진회인 감로법회에서 설해진 관세음보살의 감응을 감로법주 보월 정관 거사에 의해 선설(宣說)된 『제중감로』의 <연기>에서 밝혀지고 있다.<sup>6)</sup> 묘련사 결사는 명칭으로 볼 때는 『묘법연화경』의 수지독송 등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실천 신행은 관음보살의 성호를 염하는 신앙이 주축이었다고 보인다. 『제중감로』의 <연기>에 의하면 묘련사 결사는 1872년 겨울 11월에 염불 정진을 위해 한성의 거사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거사들은<sup>7)</sup> 관음보살의 성호를 염하며 상서로운 감응을 구하였다. 그들의 정진에 관세음보살이 홀연히 응현하여 글을 내려주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제중감로』이다. 묘련사 결사의 법회를 감로법회라고 하며, 법회의 사규라고 할 수 있는 『감로법회』는 1882년에 판각되었다. 여기에는 결사문, 발원

5) 村山智順, 『朝鮮의類似宗教』, 1937, 이갑봉, 앞의 논문, p.36. 재인용.

6) 正觀,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韓國佛敎全書』 11), 동국대학교출판부, pp.776하-777중.

7) 서수정, 「19세기 후반 결사단체의 佛書 編刊 배경」, 『한국불교사연구』 11, 한국불교사학회, 2017, pp.298-330; 서수정, 「19세기 佛書刊行과 劉聖鍾의 『德新堂書目』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p.116-138.

문, 성념명(聲念銘), 사규가 실려 있다. 묘련사는 결사체이고, 감로법회는 결사의 정진회를 지칭한다. 묘련사 감로법회에서 편집한 『제중감로』에 대한 논의는 잠시 미루고, 묘련사 법려들을 먼저 살펴보자. 6개의 목재를 연결하여 판각한 원통궁던이나 8개의 목재를 연결하여 정밀하게 판각한 장대누각을 제작 보급한 거사들이 묘련사 법려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통궁던의 기단부 좌측에는 다음과 같은 판각기가 적혀 있다.

“普門應化 無量無邊 自在大悲 攝受有緣 如是莊嚴 善巧方便 示現震丹 作大福田 土有正信 一念承宣 何期像季 儼然當年 法雲常住 慧月長圓 亘古亘今 撒塵大千 見聞隨喜 咸階九蓮 盡未來際 廣度人天

歲昭陽作 噩結夏日 葆光居士 普圓 敬讚  
印潭居士 性月 謹書”

위의 판기는 “大悲願力呪 消災增福壽 光緒7年辛巳(1881) 7月 25日 錦山 靈泉寺 流布”라고 간략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충남 금산 보석사 영천암 판에 비하면 적지 않은 정보가 담겨 있다. 탑도 목판과 관련된 인물을 전해주고 있다. 판기에는 정신(正信), 보광(葆光), 인담(印潭)의 세 거사가 등장한다. 세 거사는 묘련사 법려들이 찬술한 『제중감로』의 찬집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언급하고, 다시 장대누각의 판각기와 비교해보자.

“此是普門示現方便門 從菩薩本願力 蓮社諸賢精進力中 流出可見 弘慈大悲靡不周徧 以自在善巧 隨機拯濟有緣衆生也 居士 正信性湛 承宣判布 普與法界 仗此大願王 同證圓通云爾 同治 癸酉(1873) 端陽日 比丘 喚眞 敬識 居士 性月 謹書 普圓 對明眞 正明 大慈行 叅訂”

장대누각의 판각기는 좀 더 정교하다. 원통궁던에는 정신(正信)이라고 승선자(承宣者)를 밝히고 있는 데 비해 여기서는 정신에 해월 성담(性潭)이 더해져 있다. 정신(正信)은 속명이 정학영(丁學泳)으로 ‘감로법주’인 보월정관(普月正觀)과 동일인이다.<sup>8)</sup> 또 거사 중심의 결사와 관련되었지만 특이한 것은 비구 환진(喚眞)이 기를 적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구 환진이 묘련사 거사들의 신행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진은 환옹 환진으로 백파 공선의 손제자로 태고하(太古下) 17세(世)이고 월초 거연의 스승이다.<sup>9)</sup> 월초 거연은 ‘홍

8) 리송재, 앞의 논문, p.41.

9) 신규탁, 『선문수경 해제』(동국대출판부, 2012), p.21.

월초'으로 속명은 중섭(重燮)이고 서울에서 태어나 15세 되는 1872년 양주 봉인사 부도암에서 환옹 환진에게 출가하였으며,<sup>10)</sup> 화계사의 주지로서 동국대학교의 전신이라고 이해하는 명진학교의 설립 등 한국불교의 근대 시기에 활동한 승려이다.

월초 거연이 출가한 다음 해인 1873년 여름에 원통궁뎡과 장대누각이 화계사 삼성암에서 판각되었다. 또, 거사 성월(性月)이 쓰고, 보원(普圓)이 대조하고, 명진(明眞)·정명(正明)·대자행(大慈行)이 함께 교정하였다. 장대누각에는 정신·성월·보원·명진·정명·대자행 등 6인의 거사가 등장하고 있다. 대자행은 범명을 세 자로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 불자라고 할 수 있다. 두 탑도 목판에는 6인의 거사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은 출가자들처럼 법호와 범명을 수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통궁뎡에서도 확인된다. 보광 보원·인담 성월인데, 장대누각의 성월과 보원이 이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장대누각에는 범명만을 기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원통궁뎡에는 법호와 범명을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이 둘은 『제중감로』 1, 2권의 봉휘자(奉彙者)로 등장하고 있다.<sup>11)</sup>

두 탑도 목판 외에 묘련사 범려의 거사로는 『제중감로』의 승선자 보월 정관, 연기자 인가(印伽) 거사, 서문을 쓴 순양자(純陽子), 1~2권의 봉휘자 보광 보원, 인담 성월, 3~4권의 봉휘자 해월 성담, 현허 자운 거사가 있다. 이 중 1~2권의 봉휘자는 원통궁뎡의 찬서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3~4권의 해월 성담(性潭)과 정신과 함께 장대누각을 승선(承宣)한 성담(性潭)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묘련사 범려 가운데 탑도 목판 판각이나 『제중감로』의 편찬 등에 참가한 거사 범려는 10여 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중감로』의 이 서문을 쓴 순양자(純陽子)나 보광 거사 등이 불도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묘련사 결사가 순수한 불교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홍불교, 유사불교로 불리게 되었지만<sup>12)</sup> 묘련사 결사의 범려들의 신행은 관음성호를 염송한 관음신앙 행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묘련사 결사는 도교 결사인 무상단(1877)과 감로사(1882)라는 결사로 진행되며 묘련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유성종이 동묘의 주제관이었고, 제중감로를 승선한 정극경도 그러하므로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결사체로 보고 있다.<sup>13)</sup>

묘련사 결사의 정진회의 범주는 감로법주로 보월 거사 정관 정학영(丁學泳)이다.<sup>14)</sup> 보월

10) 한상길, 「화계사의 근대사」, 『삼각산 화계사의 역사와 문화』(화계사, 2013), p.51.

11) 正觀,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韓國佛敎全書』 11), 동국대학교출판부, p.777하.

12) 이봉춘, 「조선시대의 관음신앙」, 『한국의 관음신앙』(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77), p.193; 무라야마 지준, 『朝鮮の類似宗教』(충독부, 1937), 이갑봉, 앞의 논문, p.36. 재인용.

13) 박소연, 「19세기 후반 서울지역 신앙결사 활동과 그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80(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pp.9-22.

거사 정관은 『제증감로』를 승선하였다. 감로법회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감로법회 회장 김기선(金基瑄)은 다른 인물이다. 활동 시기가 완전히 다르다. 보월 정관이 『제증감로』를 승선(承宣)한 시기는 1872~1875년이고, 감로법회를 조사한 시기는 1921~1924년이며, 무라야마 지준의 『朝鮮の類似宗教』를 조사한 시기는 1937년이므로 그 역사적 간격이 적지 않다.

김기선은 금강산 건봉사 염불만일회의 포교사로서 감로법회 당시 회장으로 서울 이화동 중앙포교소에 재임하였으며, 관음재일에 부인들에게 부녀회를 조직하게 하고 감로법회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묘연사 전통의 감로법회를 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감로법회는 정광여래·약사여래·미타여래·지장보살·관음보살의 재일에 모임을 가졌다고 하며, 김기선은 법려들에게 수계하고 불명을 지어주기도 하였다.<sup>15)</sup> 1930년대 감로법회 회장 김기선과 1870년대 보월 정관 정학영을 동일 인물로 보아온 것은 잘못이다.

한편 봉취자 보광 거사 보원은 비교적 자세한 이력이 알려져 있다. 보광 보원은 유성종(劉聖鐘, 劉雲)으로 본관은 강릉이며, 1821년에 태어나 1884년 68세로 별세하였는데, 유운은 불교와 도교를 회통하는 전형을 보여준 거사이자 도사(道士)라고 할 수 있다. 일명 ‘유성환’이라고도 하며 자는 수경(岫卿), 호는 무심옹(無心翁)·연화재(蓮華齋), 법호는 보광(葆光), 일호는 광당학인(光堂學人), 법명은 보원(普圓), 도호는 여시관주인(如是觀主人), 청련자(淸蓮子), 유청련법사(劉淸蓮法師)라고 하였다. 가의대부, 행릉위호군 무관직 고관으로 동관왕묘(종묘서)를 관리하던 도관이었다.<sup>16)</sup>

유운은 월창 거사 김대현(1823~1870)의 문하에서 1849~1860년간에 사사하였으며, 김대현의 영향으로 불교 거사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묘연사 결사 이전, 환공치초(幻空治兆)가 고령산 보광사에서 결사한 정원사에도 참여하였다. 유운은 김대현의 『술몽쇄언(述夢瑣言)』의 발문을 지었고, 『청주집』의 결사문을 편집하였으며, 『정토감주』 1권을 봉취하였다. 1882년 『원해서범』에도 발문을 짓는 등 19세기 말 왕성한 활동을 한 대표적인 불교 지식인 거사라고 할 수 있다.

『제증감로』의 기타 봉취자들이라고 보이는 이들에 대해 『조선불교통사』나 『조선도교사』에서 이능화는 최성환(1813~1891), 정극경, 유성종 등을 속명으로만 전해주고 있어 정확하게 연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성환은 관왕묘의 도관이었고, 유성종은 삼성암의 창건주 고상진과 함께 무상단의 일원이라는 주장도 있다.<sup>17)</sup>

14) 리송재, 앞의 논문, p.268.

15) 이갑봉, 앞의 논문, p.36. 재인용.

16) 이갑봉, 앞의 논문, p.40.

17) 김윤수, 「高宗時代의 鸞壇道敎」, 『동양철학』 제30집(한국동양철학회, 2008), p.65.

답도 목판이나 『제중감로』에는 ‘승선(承宣)’과 ‘봉휘(奉彙)’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승선’이 묘련사의 종교적 특징과 관련이 깊다고 보인다. ‘승선’은 명을 받아 선포한다는 뜻이다. 승선자가 스스로 법이나 답도 목판을 지은 것이 아니라 관음보살이 감응하여 설해준 것을 받아 선포하게 된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정리하면 감로법주 보월 거사 정관 정학영(丁學泳, 正觀, 正信)과 혜월 거사 유희제(劉熙濟, 性湛)는 『제중감로』나 답도 목판을 관음보살의 감응을 받아 언설로 판(判)하여 선포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묘련사 법려들의 관음보살의 성호를 염한 데 대한 관음보살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승선에서 묘련사와 그들이 남겨놓은 답도 목판이나 『제중감로』는 깊은 종교적 영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봉휘자의 봉휘(奉彙)는 법문을 받들어 모아 편찬한다는 것이다. 승선은 관음보살의 응현을 드러낸 것이라면 봉휘는 그 법설을 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답도 목판이나 『제중감로』는 묘련사 결사 법려들의 신심이 얼마나 장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사들로 이뤄진 묘련사 결사이지만 그들의 영험을 화엄의 대가 환옹 환진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된다. 불교의 출가자가 붓대를 대신하여 재가 거사들의 신앙을 증명하고 사찰이 그들의 기도수행 공간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묘련사 결사가 화계사 삼성암에서 진행된 것은 1884년 가을이었지만, 답도 목판이 제작된 해는 그 이전인 1873년 同治 癸酉(1873), 歲昭陽[癸]년이었다. 그해 4월 보름에 보광 거사 보원이 원통궁전의 찬을 썼고, 단양 일[단오]에 비구 환진이 장대누각의 기문을 지었다.

## 2. 『제중감로』의 내용과 사상

『한국불교전서』 11책에 실린 정관의 『제중감로』는<sup>18)</sup> 서(序)와 연기(緣起)를 비롯하여 10품이 4권으로 구성되었다. 『제중감로』는 결사 법려들이 관음성호를 염한 기도에 관음보살이 감응하여 법회에 엄연히 모습을 나타내어 감로법주에게 각 품을 설하라는 명으로 이뤄졌다.<sup>19)</sup>

첫째, 고태자우품(苦海慈雨品)은 1872년 겨울 11월에 묘련사 법려들이 삼각산 감로암에서 설해졌으며,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을 감로법주 정관이 관음보살의 신묘력으로 제도한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보문품」과 『능엄경』의 관음보살 응신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나 『제중감로』에서 중생을 자비로 살핌을 다르지 않다고 설한다.

18) 正觀,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韓國佛教全書』 11), pp.776하-825하.

19)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연사법려필강관음」 조; 이갑봉, 앞의 논문 요약.

둘째, 십종원신품(十種圓信品)은 1873년 봄 감로암에서 설해졌으며, 원만한 믿음은 열가지가 있으며, 이를 수기원신이라 하며, 원만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원력(悲願力)과 감응력, 정묘력(淨妙力)을 내어 삼매에 들라고 하며, 이렇게 하면 무상보리심과 영명진여심(靈明眞如心), 본연공경심(本然恭敬心)의 세 가지 마음이 일어나 장애가 사라지면 그때 열가지 원만한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

셋째, 보광연화품(普光蓮華品)은 1873년 가을 해인 장자의 집에서 설해졌으며, 감로법회에 동참한 이들은 연화세계에 있음과 같다고 하며 중생의 생활을 바다에 비유하고 피안을 절벽으로 비유하며, 관음보살의 덕화는 시방세계에 미친다고 설하고 있다.

넷째, 일체원통품(一切圓通品)은 1873년 겨울 담연단(湛然壇)에서 설해졌으며, 계송을 설하고 나서 감로법주 정관은 원만하고 한량없는 법문이 모든 문에 다하도록 통한다며 십종원통문을 설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체가 원만하게 통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섯째, 여시계찬품(如是偈讚品)은 1873년 겨울 보련정실(寶蓮淨室)에서 설해졌으며, 감로법주가 자비심을 내어 법계를 세워서 일체 중생에게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의 문을 열어 주는 계를 설하고 있다.

여섯째, 묘현수기품(妙現授記品)은 1874년 봄 감로암에서 설해졌으며, 법주 정관이 묘련사 결사 범려인 동참자 144명에게 한 명 한 명 계송으로 전법하고 있다. 법명을 기준으로 이들의 성별을 구분하는데 남자가 54명, 여자가 90명이다.

일곱째, 반본환원품(返本還源品)은 1874년 여름 여시관(如是觀)에서 설해졌으며, 보원이 법회 동참 대중을 대표하여 감로법주 정관에게 참다운 감로의 법을 구하는 방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관음보살을 친견하며 따를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자 정관은 불신은 원만함이 허공과 같고 본래부터 법이 온 곳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여덟째, 무진방편품(無盡方便品)은 1874년 가을 화계사 삼성암에서 설해졌으며, 한량없는 방편으로 제도한다는 것으로 동참자들이 보살의 지혜지에 들어가지 못해, 어떻게 법에 도달하며, 보살도를 어떻게 수지하며, 보살행을 어떻게 닦아야 하며, 어떤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지를 질문하자 각 질문에 대해 열 가지 병통을 설하고 있다. 아울러 중생을 제도하는 열 가지 방편을 설하여 그 처방법이 바로 관음보살의 자비사상인 중생제도로 회향하고 있다.

아홉째, 불가사의품(不可思議品)은 1875년 봄 진국사(鎭國寺)에서 설해졌으며, 관음보살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다며 상품에서 감로법회에 동참하여 정진하는 도반들에게 구법·청법(請法)·청법(聽法)·문법(問法)·염불·관불·먹불(覓佛)·견불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 하품에서는 ‘오중대는 명심불망’ 가운데 충효 사상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열째, 전불가설품(轉不可說品)은 1875년 봄 담연단(湛然壇)에서 설해졌으며, 설하지 않

은 말이 없음을 설하고 있다. 앞에서 설해진 모든 품이 바로 전하지 않음이 없으니 모두가 참된 법이요 원만한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제중감로』는 이렇게 7곳에서 열한 번에 걸쳐 설해지고 1877년경 묘련사 결사에 의해 편집되었다.<sup>20)</sup> 관음성호를 염하는 정진으로 관음보살의 감응을 받아 설해졌음을 상현 거사는 ‘붓이 내려왔다(降筆)’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승선(承宣)’이라고 할 수 있다. 관음보살의 자비원력으로 설하신 가르침을 받들어 설하고 그것을 옮겨 적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가장 구체적인 한국불교 관음신앙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중감로』에 담긴 사상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제중감로』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학계에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관음신앙이나 불교와 도교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제중감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중감로』에 나타난 관음신앙의 특징을 불교 사상과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살핀 연구 성과를 만날 수 있다.

앞의 연구 성과에 의지하면 『제중감로』에 나타난 관음사상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제중감로』에 나타난 관음보살의 응현은 자각(自覺)과 자비행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제중감로』에 나타난 논리 형식은 체용론(體用論)을 기반으로 감응사상과 성기 사상이 융합되어 독자적인 관음응현의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제중감로』에는 유심정토·선사상·화엄사상 등 다양한 형태의 종파사상이 융합되어 있다. 넷째, 『제중감로』에 나타난 관음보살은 중생구제를 중시하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성이 강하다.<sup>21)</sup>

이렇듯이 원통궁뎡을 조성하고 보급한 묘련사 법려들은 관음보살의 신앙을 바탕으로 관음보살의 응현을 자각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되 체용론의 일심과 다양성의 융합을 통해 중생구제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결사를 시작한 이듬해 불과 서너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873년 봄에 관음의 응현을 받들어 중생의 구제를 위해 원통궁뎡을 승선(承宣)하여 판포(判布)하고 있는 것이다.

### Ⅲ. 원통궁뎡의 상징미학

회계사 소장 원통궁뎡은 장대누각·연화고향 탑도목판과 함께 2016년 8월 서울시 유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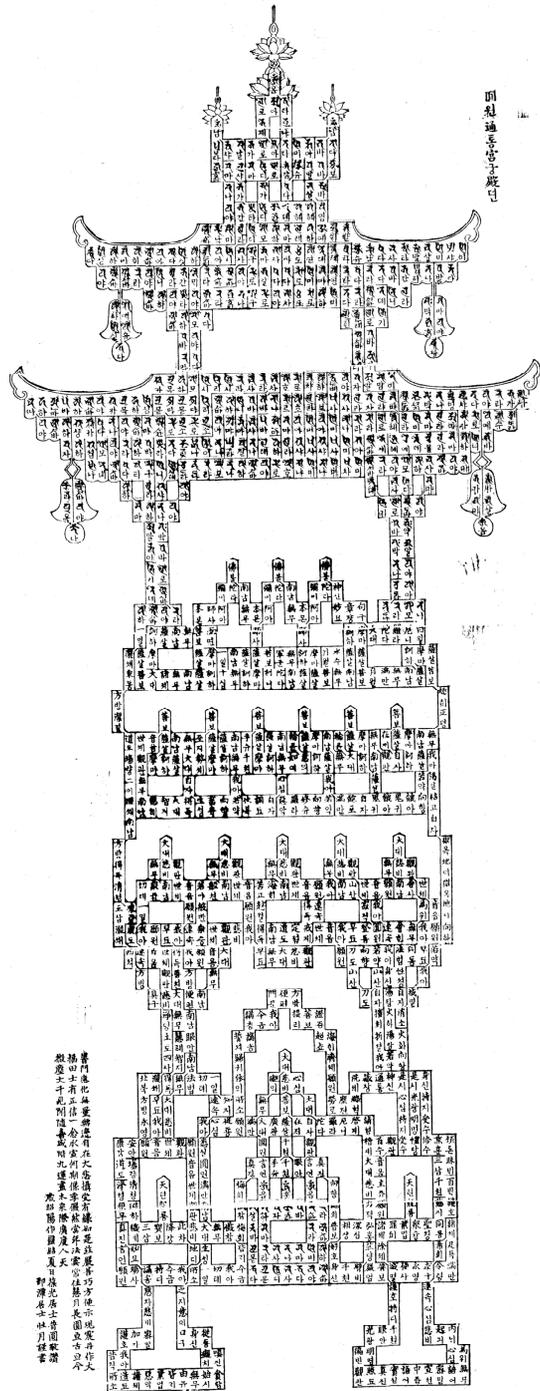
20) 차차석,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에 나타난 관음신앙의 특징』, 『보조사상』 39호(보조사상연구원, 2013), p.221.

21) 차차석, 앞의 논문, pp.248-249.

화재 제388호로 지정되었다. 6개의 목재를 이어 마치 문짝 같은 목판 형태에 관음보살이 설한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다라니>로 원통궁던을 조성하고 있는데, 관음보살이 설한 다라니가 곧 원통궁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원통궁던의 형태는 관음의 중생 구제를 진언과 중생의 발원을 상하로 대비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서 원통궁던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의 세계를 그 아름다움의 측면과 그 속에 내재한 교학과 그 사유의 철학을 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원통궁던 상하의 구성에서 불[성인]과 중생의 세계를 읽을 수 있고, 둘째 구원과 발원 등의 중심과 좌우 대칭으로 구성된 상징 세계의 아름다움을 읽어볼 수 있다.

### 1. 상하의 성현과 중생

원통궁던은 옥개(지붕)와 탑신으로 이뤄져 있다. 옥개는 다시 이층으로, 탑신은 5층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기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옥개와 탑신의 상하로 나누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이때 옥개와 탑신을 구성하는 내용은, 옥개는 관음보살이 설한 다라니로 구성되었고, 탑신은 중생의 발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



것은 원통궁던 구성체계의 상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세계는 붓다(관음불)이 자비의 범사리 신묘장구다라니이다. 아래 세계는 중생의 발원이다. 중생의 발원에 의해 붓다(관음보살)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라니를 설하신다. 먼저 옥개 위에서 중생을 위해 다라니를 설하시는 관세음보살의 세계에 대해 좀 알아보자.

신묘장구다라니를 설해주신 관세음보살에 대해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관세음보살은 불가사의한 위신력으로써 과거 무량한 겁중에 이미 성불하여 마치 호를 정법명여래라고 하였다. 대비원력을 행하고자 다시 일체보살로 시작하여 중생들을 안락하게 성숙하게 하니, 오래 전부터 보살행을 행하여 나타났던 것이다.”<sup>22)</sup> 해서 석가모니 붓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신다. “너희 대중과 모든 보살마하살과 범천·제석·천·용·신들은 모두 마땅히 공경할 것이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라. 일체의 사람과 천신은 항상 공양하고 오로지 명호를 부르라. 무량한 복을 얻고 무량한 죄를 멸할 것이요, 목숨을 마치면 아미타 붓다의 나라에 왕생하리라.”<sup>23)</sup>

관세음보살의 이 대비신주는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고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설하시기 전에 먼저 오로지 명호를 부르라고 설하고 있음은 명호를 부르는 칭명신앙과 대비신주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비신주의 위대함은 차츰 언급하겠지만 명호를 칭명하여 관음보살의 가피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원통궁던을 조성한 묘련사 범려들의 신행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묘련사 범려들은 삼각산 감로암을 중심으로 삼각산 일대 7곳에서 정진 법회를 열었다. 그 시작이 1872년 겨울이었는데 그 이듬해 4월에 이 원통궁던을 승선했다.

원통궁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상·하의 배치와 좌우의 대칭은 우리의 말문을 막을 정도로 정교하다. 상·하의 불(성인)과 중생(범부)의 배치는 말할 것도 없는데, 상의 정점에 ‘옴’과 ‘람’을, 하부에는 중생의 발원과 좌우의 천룡으로 외부를 장엄하고 있다. 이것은 범부의 지해(知解, 알음알이)로 기획하고 구도할 수 없는 정교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심을 일군다. 원통궁던을 축조한 것은 오로지 관음보살 응현의 가피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관음보살의 응현을 이루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묘련사 범려들의 칭명성호 정진으로 얻게 된 것이다.

붓다의 법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칭명에 의해서이다. 염착심이 없이 칭명성호하여 묘련사 범려들은 관음의 응현을 이루었던 것이다. 신묘장구다라니는 과거세 천광왕정주여래 붓다께서 관음보살을 가련히 여기시고, 일체중생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에게 설해주신 다

22) 伽梵達摩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大正藏 20), p.110a.

23) 伽梵達摩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大正藏 20), p.110a.

라니이다. 천광왕정주여래는 관음보살에게 대비심주를 설해주시면서 미래 악세의 번뇌 많은 일체 중생들에게 전하여 큰 이익을 짓도록 부탁하셨다. 관세음보살은 이 다라니를 듣고서 초지의 보살에서 팔지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관세음보살은 현세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신묘장구다라니를 설하게 된 것이다. 이 위대한 신력이 있는 다라니를 받고자 하는 이에게는 최소한의 발원이 요청된다. 그것이 다름 아닌 십원(十願)·육향(六向)으로 알려진, 현행 천수경의 그것이다.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지혜안,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선방편,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승반야선,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월고해,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득계정도,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등원적산,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회무위사,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동법성신”의 십원과 육향이 라고 알려진 “아악향도산 도산자최절, 아악향화탕 화탕자소멸, 아악향지옥 지옥자고갈, 아악향아귀 아귀자포만, 아악향수라 악십자조복, 아악향축생 자득대지혜”가 그것이다.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와 관음보살의 본사이신 아미타여래의 명호를 오로지 염하라고 말씀하신다.<sup>24)</sup> 하부의 중생이 해야 할 역할이 이렇게 제시된 것이다. “제가 빨리 일체 법을 깨치려 하니, 제가 빨리 지혜의 눈 열려지이다. 제가 빨리 모든 중생 건네주리니, 제가 빨리 좋은 방편 얻어지이다. 제가 빨리 지혜의 배 오르게 되어 제가 빨리 고통 바다 건너 지이다. 제가 빨리 계정혜를 갖추게 되어 제가 빨리 원적산에 올라지이다. 제가 빨리 함 없는 곳 이르게 되어 제가 빨리 진리의 몸 이뤄지이다.”<sup>25)</sup>라는 서원과 “내가 칼산 향하면 칼산 절로 꺾이고, 내가 화탕 향하면 화탕 절로 사라지며, 내가 지옥 향하면 지옥 절로 없어지고, 내가 아귀 향하면 아귀 절로 배부르며, 내가 수라 향하면 악한 마음 무너지고, 내가 축생 향하면 지혜 절로 얻어지리.”<sup>26)</sup>라는 육향이다. 십원과 육향은 다 발원이다.

사명 지례(四明知禮, 960~1028)는 이 십원을 사홍서원에 배대하여 설명하고<sup>27)</sup> 있지만 결국 다 원이다. 중생을 건지겠다는 발원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큰 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무대비관세음”이라는 칭명이다. 이것으로 볼 때 묘련사 법려들이 실천했던 관세음보살의 명호 칭명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신행임을 알 수 있다.

가범담마가 번역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십다라니경』(약칭 원천수경)에는 십원 육향의 발원과 함께 관세음보살과 관세음보살의 본사이신 아미타여래의 칭명을

24) 伽梵達摩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大正藏 20), pp.106c-107a.

25) 이성운, 『천수경, 의궤로 읽다』(정우서적, 2011/2015), pp.86-87.

26) 이성운, 『천수경, 의궤로 읽다』(정우서적, 2011/2015), p.95.

27) 四明沙門知禮集, 『千手眼大悲心咒行法』(대정장 46), p.974c.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붓다를 모시는 수행자는 무엇보다 관세음보살을 모시기 위해 대비심주를 청하는 계청례를 봉행하게 된다. 원통궁전의 시작인 계청문이 그것이다.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대다라니계청”은 흔히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청’만을 줄을 바꿔[改行]하여 계수문과 찬탄문의 제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28)</sup>

7언 8구로 이뤄진 계수문의 의미를 알아보자. “자비하신 관세음께 절하옵니다. 크신 원력 거룩하온 덕상 갖추고, 천수로서 온갖 중생 보살피시며, 천안으로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진실한 말씀 속에 다라니 펴며, 함 없는 마음속에 자비심 넘쳐, 저희 소원 하루 속히 이루게 하고, 모든 죄업 남김없이 없애 주시네.”<sup>29)</sup> 관세음보살이 설해주는 대비심주를 청하기 위해 발원과 칭명을 행하기 전에 먼저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며 절을 올리는 것이다. 적지 않은 유통본의 첫 구 ‘대비주(大悲主)’가 ‘대비주(大悲呪)’로 와전되었지만, 원통궁전은 ‘대비주(大悲主)’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계수의 찬탄에 이어, 대비심주의 지송수행자를 옹호해주는 천룡의 찬탄이 이어진다. 이것은 대비심주의 위대한 신력을 보여주며, 7언 8구로 구성되었다. 의미만을 살펴보자. “신중님들 자비로써 옹호하시니, 온갖 삼매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대비주 수지하니 몸은 빛나고, 대비주 수지하니 자유로워라. 번뇌를 씻어 내고 고해 건너서, 깨달음의 방편 문 얻게 되오며, 저희 이제 지송하며 귀의하오니, 마음 따라 바른 소원 이루어지네.”<sup>30)</sup> 그렇다. 흔히 염불주력을 이행문이라고 설하기도 하지만 명호 칭명이나 다라니 주력은 이행문이지만 결코 열등한 그런 것이 아니다.

‘회통불교’로 불리고 있는 한국불교는 염불·간경·참선의 삼문수행 전통을 지니고 있다. 세 수행은 차이에서가 아니라 근기에 따른 선택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인식은 한국불교의 보통 축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간경자혜안통투, 염불자삼매현전, 참선자의단독로’를 조석으로 축원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불교 수행자[문]의 세 양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무차별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계수와 찬탄의 16구를 마치고 발원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천룡의 옹호라고 할 수 있다. ‘원천수경’에는 대비심주 지송자를 옹호하는 천룡에 대해서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설하고 있다. “나는 보내겠다. 밀적금강사와 오추 군다 양구시와 팔부역사 상가라여, 수지자를 마땅히 옹호하라.”<sup>31)</sup>

28) 『삼문직지』; 『삼화행도집』; 『불광법회요전』.

29) 이성운, 『천수경, 의궤로 읽다』(정우서적, 2011/2015), p.75.

30) 이성운, 『천수경, 의궤로 읽다』(정우서적, 2011/2015), p.79.

31) 伽梵達摩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大正藏 20), p.108b.

이어서 마해와, 나라연, 금강타라 등 수많은 신중들을 수지자에게 보낸다. 그로 인해서 송주자는 삼매까지 이뤄지는 것이다.

묘련사 법려들이 법화경 보문품을 신앙하는 결사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음성호 칭명 결사라는 사실과 그들이 이 원통공던을 승선한 것은 원통공던의 불세계를 상징하는 대비심주의 위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발원 전반부의 그것이 알려주고 있지만 불세계의 대비심주를 송해 마친 다음의 찬탄과 서원이 중생세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세계를 구성하는 대비심주는 오른쪽에서 정상을 올랐다가 왼편으로 내려온다. 내려오는 곳에 놓인 중생의 세계는 ‘일쇄동방결도량’ 하는 사방찬이다. 사방찬이나 도량계 등이 대비심주 다음에 등장하는 예는 한국불교의 ‘불교송주집’뿐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중국 선문에서 성립된 『선문일송』을 비롯해 현대의 중국·대만·일본 등지의 한전(漢傳) 불교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sup>32)</sup> 대비심주 이전의 계청의 계수나 찬탄, 10원과 6향, 관음과 관음의 본사 아미타불 칭명도 마찬가지이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대비심주 이전의 계청과 발원 칭명은 원천수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청법이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불교의 우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비심주를 칭해 염송하고자 할 때 원천수경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계청 방법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비심주 염송 이후의 사방찬과 도량찬이 어떤 연유로 대비심주를 염송한 다음에 시설되었을까. 그것은 대비심주의 아홉 가지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비심주의 공능이 탁월한 데서 왔다고 보인다. 관음보살을 청하여 대비심주를 설해 받아 청수를 감로수로 변해지도록 가지(加持)해서 도량과 대중에게 뿌려 법회도량을 정화하는 도량엄정(嚴淨) 의식으로 널리 사용되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도량과 제(재)자가 머물고 있는 예토를 정토로 변화되도록 대비심주를 가지한 감로수를 도량과 대중에 뿌려 정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사방찬과 도량찬을 대비심주 칭송 다음에 위치하여 그 공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다시 참회계송과 진언이 추가되고 있다. 원래 도량에 감로수를 뿌려 도량과 제(재)자를 정화한다고 하였지만, 다시 한번 더 재자의 참회로 성현을 청하는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이다.

해서 화계사 소장 탑도목판 원통공던은 중생을 건지는 관음붓다의 다라니인 법장의 상부, 그리고 붓다관음의 구제를 소망하며 예경하고 찬탄하며 발원하고 다라니를 봉지한 다음 그 다라니로 도량과 재자의 정화를 완성하여 붓다관음을 맞이하고자 발원하는 중생의 세계가 하부에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관세음보살의 응현과 가피는 중생의 발원과 실천이

32) 『禪門日誦』; 趙樸初 編, 『佛敎念誦集』(2004); 陳文富 編輯, 『佛門必備課誦本』(瑞成書局, 2006); 『時宗勤行式』.

곧 붓다관음을 모시는 것임을 원통궁뎌은 무설설(無說說)하고 있다고 하겠다.

## 2. 중심과 대칭의 장엄

원통궁뎌은 단전부 중앙의 ‘천’이 오른쪽 ‘수’로 이어지고, 다시 위 중앙의 ‘천’이 왼쪽 아래 ‘안’을 구성하며 시작하고 있다. (불을 우요하듯이) 이렇게 시작되어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계청”의 제목에 핵심인 ‘대비심’을 첫째 궁전의 모시는 ‘사리[붓다]’로 인식해 단전부 중앙에 위치하며 ‘궁뎌’의 대단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원통궁뎌을 건립하기 시작한 노정은 일체 공덕을 회향하는 보회향진언의 마지막의 ‘흠’자로 마감되고 있다. ‘천수’로 시작해서 ‘흠’으로 마감되는데 그 중심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원통궁뎌의 긴 여정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천수’는 중생 구제의 방법이고 시작이라고 한다면, ‘흠’은 중생구제의 마침을 의미한다. 광설(廣說)하면 ‘흠’자는 원인을 소멸한다는 의미이다.<sup>33)</sup>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 원인을 없애버려야 본래의 완전한 붓다가 실현된다. 이렇게 수행과 구제가 완성되는 노정이 바로 원통궁뎌의 중심을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천수’는 불의 자비와 중생의 발원이 핵심인데, 관세음보살은 관음의 자비를 간절히 소망하는 고통 받는 중생을 천안으로 살피 천수로 건진다. 중생을 연민하게 여기는 대비심이 중심을 이룬다.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원통궁뎌의 절대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원통궁뎌에는 첫 중앙의 ‘대비심’과 11면의 보살과 3본사아미타불이 모여져 있다.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대비심’은 관음의 ‘방편문’으로 실현된다. 그것이 온전히 중앙의 핵심에 자리한다. 대비심의 관음보살이 천수와 천안으로 방편문으로 중생에게 나타나 중생을 건지는 것이다. 이것이 보문시현이다.

보문시현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문으로 관음청의 찬탄이 있다. “一葉紅蓮在海中 碧波深處現神通 昨夜寶陀觀自在 今日降赴道場中:<sup>34)</sup> 바다 속 붉은 연꽃 한 송이 피어나 푸른 파도 깊은 데서 신통을 보이시네. 어젯밤엔 보타산에서 자재하게 관하시고 오늘은 도량에 내려오셨네.” 바닷가 보타락가산에 계시는 관세음보살은 선정에 들어[觀音禪定] 중생을 살피보고 계신다. 당신을 간절히 부르는 이를 살피보시고,[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世音] 듣고 오셔서 구제하기 때문에 심성구고(尋聲救苦)라고 한다.

보타낙가산의 보문을 보문(普門, 補門, 寶門)이라고 하는데, 그 문을 나와 도량에 내려오

33) 김유광, 「비밀다라니의 현대적 이해」, 『한국불교학』 5(한국불교학회, 1980), p.129.

34) 『靈山大會作法節次』(『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2, 1634), p.132상.

시는 것이다. 그래서 보문을 자문(慈門)이라고 한다. 자문(慈門)을 두드리거나 관음을 청해 부르는 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몸을 나타내시므로 그 문은 보문이자 자문인 것이다. 도량에 내려오시는 연유는 중생들이 감로수를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감로수를 청하는 까닭은 중생의 열뇌를 식히고 도량을 정화하기 위해서이다.

원통궁던 중앙의 외형상 핵심은 정수리의 ‘옴’이다. 원통궁던에 ‘옴’자는 네 번 출현한다. 대비심주에 두 번, 참회진언과 보회향진언에서인데, 두 진언의 옴 자는 ‘흠’자를 옹호하는 형국을 띠므로 중앙보다 대(對)의 미(美)에서 다루는 것이 의미 있다. 사실상 중앙의 ‘옴’자는 정수리의 핵심이 된다. 또 정수리의 ‘옴’자는 사실상 대비심주의 시작을 여는 진언이기도 하다. 붓다관음이 설하는 첫 음성이 바로 이 ‘옴’자인데 원통궁던의 보주(寶珠)라고 하겠다. 붓다관음이 설하는 다라니는 ‘이렇습니다[다나타]’ 한 다음에 첫 음성이 바로 원통궁던의 정수리에 보주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옴은 진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비심주는 관세음보살은 자비 충만한 절대자로 화현하여 중생을 모든 재난에서 구원한다는 신화로 구성되었다. 사실 관음신앙은 불교 본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인도 고대 힌두교의 절대신들이 관세음으로 화현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적인 성스러운 소리가 이 옴(om) 속에 종합되고 있다. 이 옴은 옴(A-U-M)의 삼박자로 구성되었다. 옴 소리가 관세음이며, 창조주인 브라흐마의 A, 유지신의 비슈누의 U, 파괴신의 시바의 M, 이 성스러운 우주적인 진동음은 삼박자를 이룬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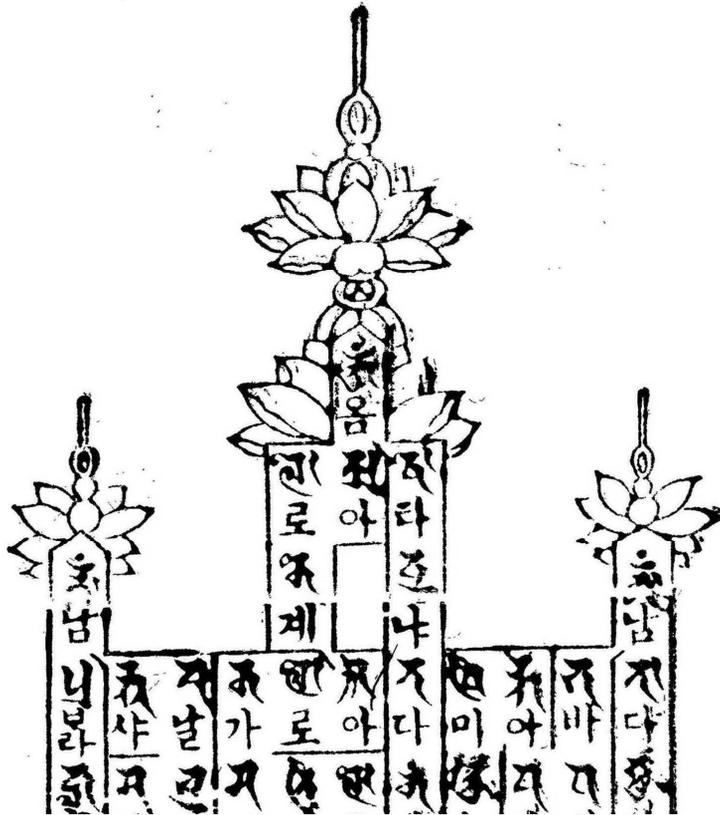
이 창조·유지·파괴라는 세 속성이 ‘옴(om)’ 자에 귀결된 인도의 신앙에 대해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화합에 의해서 창조-유지-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동파라는 사실, 즉 사물의 실체성이 없다는 무상무아의 연기법적인 진리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관세음(觀世音)에는 창조-유지-파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절대적 신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묘음(妙音), 범음(梵音), 해조음(海潮音), 승피세간음(勝彼世間音)이 되는 것이다.<sup>36)</sup> 해서 원통궁던 정수리의 ‘옴’자는 곧 관세음이다. 관세음의 옴이 원통궁던의 중앙과 정수리를 구성함으로써 중생구제는 곧 무상(無上)의 법문으로 놓이게 된다. 원통궁던의 중심을 관통하는 천수와 자비심, 방편문, 11보살, 3아미타불과 ‘옴’자는 결국 붓다관음이라고 할 수 있다.

관음은 창조의 자리요, 유지의 자리이며, 파괴의 자리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가 묘음이요, 범음이며, 해조음이자 ‘승피세간음’이므로 한국의

35) 전재성, 『천수 다라니 공덕과 의미』(이바지, 1997), pp.12-13.

36) 전재성, 『천수 다라니 공덕과 의미』(이바지, 1997), pp.47-48.

불교의례에는 ‘범음(범천의 음성)’으로 붓다관음의 소리를 진술하고[의례의 진행]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심이 “관세음”이고 “붓다의 자리”라고 한다면 중생이 주변이나 맴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변은 주변이고 말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주변은 중심을 외호하며 다시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단전부의 중심에서 출발한 천수의 발걸음은 정상 음에서 빛나기 시작한다. 그 음을 빛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불꽃이다. 불꽃은 무엇인가. 인도 전통의 요소설은 4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지수화풍(地水火風)이 그것이다. 지수화풍은 소박한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우주를 사유한 시원적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이 우주의 중심 소리라고 한다면 관세음이 그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수리의 ‘음’자를 좌우에서 시립하는 것은 ‘남’자이다. 대비심주의 ‘보다

남'이나 '바라남'의 '남'자가 화대(火大)의 종자 '람(ram)'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람'자의 의미와 '남'(nām)자의 친연성을 활용하여 중앙의 관세음인 '옴'자를 예경하며 시립하며 빛나게 하는 것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자가 '람'자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국불교인들에게 '옴 남'은 '옴 람'의 정법계진언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좌우에서 '남'자는 '옴'자를 시립하며 '옴'자를 비추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붓다관음을 모시는 관음을 실천하는 염불행자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원통궁던의 상부세계는 399자의 대비심주로 시작되고 끝난다. 그 시작과 끝을 상부세계의 좌·우에 네 자로 시작하고 끝냄으로써 '삼보'와 '귀경'으로 마감하고 있는 것도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옥개의 두 기둥에 자리한 '나모라뜨나'의 네 자와 '라야스 바하'가 그것이다.

현행 대비심주는 이음합자가 두 자로 표기되고 있어 실제 442음절이나 되지만 원통궁던은 한자·범자·한글의 세 문자로 표기하면서 이음합자를 상·하로 표기해서 정확한 음가를 실현하고 있음은 원통궁던이 우리 후대 불자들에게 제공하는 또 하나의 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2층의 옥개 좌·우에는 네 개의 풍경을 시설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다라니나 의미상의 대칭을 드러내 놓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부에서 확인되는 좌·우 대칭은 무엇일까. 누가 뭐래도 그 압권은 좌우의 '천룡'이라고 할 수 있다. 천수천안으로 시작되는 원통궁던의 그것을 외호하듯이 모셔놓은 천룡은 대비심주 전후의 천룡이다. 오른쪽에 모셔진 '천룡'은 '천룡중성동자호(護)'의 천룡이고, 왼쪽에 모셔놓은 '천룡'은 '삼보천룡강차지'의 천룡이다. 대비심주 전반부에서 출현하는 천룡과 후반부에서 강립하는 천룡이 동일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반부에 출현하는 천룡은 대비심주를 지송하는 행자를 옹호하여 삼매를 현전하도록 옹호하는 천룡으로 관음보살이 보내는 천룡이다. 그에 비해서 후반부에 출현하는 천룡은 삼보님과 더불어 법회에 강립하는 천룡이다. 삼보님과 함께 법회에 강립하는 천룡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뉜다. 도량을 결계하고 옹호하기 위해 법회 이전에 소청하는 천룡신중이 있고,<sup>37)</sup> 공양을 올리기 위해 소청을 받고 강립하는 천룡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후반부에 등장하는 천룡이 도량의 결계와 옹호 이후에 내려오는 천룡이라고 한다면 현재 한국불교 중위단의 천룡신중이라고 볼 수 있다. 삼보와 중단의 성현들에게 공양을 올

37)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X74, pp.785-787)에는 법회도량 건립의 결계와 엄정을 위해서 예적원만성자, 십대명왕, 대법천왕등 천룡팔부, 가람신과 복덕대신, 성황신 및 옥택신 등이 소청을 받고 내림하여 결계를 하고 있으며, 관세음보살과 비로자나불이 소청을 받고 내림하여 도량을 엄정하고 있다.



비와 참회라는 근본적인 두 발을 가짐으로써 원통궁던은 세월을 넘고 공간을 넘어 중생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상하와 좌우에 절묘하게 그 사상과 실천을 실현하고 있는 원통궁던은 보통의 지식이나 이해로서는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관음의 응현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거사 묘련사 법려 정신(正信)이 승선(承宣)하여 판포한 것이다. 정신(正信)은 화계사 소장 장대누각도 성담(性潭)과 함께 승선하였다.

묘련사 법려들이 한 철 관음성호 칭명 수행 법회를 통해 관음의 응현을 받아 제일 먼저 완성한 것이 바로 원통궁던의 건립이었다. 1873년 사월 보름 하안거 결제하는 날에 원통궁던을 완성하고 곧이어 단오날 장대누각을 완성해냈다. 이것은 원통궁던의 수행자는 곧 보현행원의 실천자로서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어

화계사 소장 원통궁던과 그 상징의 미학을 훑어보았다. 먼저 원통궁던을 조성하였다고 보이는 묘련사 법려들을 알아보고, 묘련사 법려들이 승선(承宣)한 『제중감로』와 원통궁던에 펼쳐진 상징의 미학을 살펴보았다. 1872년 가을 감로암에서 출발한 묘련사 결사의 법려들이 화계사 삼성암 등 7처에서 정진법회를 열고 관음보살을 칭명하였다. 그들은 한 철이 지난 이듬해인 1873년 봄에 관음의 응현을 받아 원통궁던을 판각하고 인쇄본을 세상에 내놓았다. 관음이 아미타불을 머리에 이고[頂戴] 수행하듯이 묘련사 법려들은 판포한 원통궁던의 인쇄본을 수지해서 모시고 수행 정진하였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책자로 유인하여 반포하고 수지하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그들은 원통궁던이라는 탑도 목판을 판각하여 반포함으로써 그것을 수지하고 정진하는 있는 이들이 있는 그곳을 관음보살이 주석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보인다. 그렇게 하여 수행하는 그곳에서 관음의 감응으로 각자가 관음의 중생구제 실천자로 나섰다고 할 수 있다. 판포된 원통궁던은 화계사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의 몇 곳에서 복제되었다고 보인다.

묘련사 법려의 회주 보월 거사 정관은 법려들을 이끌었고, 관음의 응현을 받아 법을 설했다. 7곳에서 11차에 걸쳐 설해진 관음의 법문은 1877년 『제중감로』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한국불교 관음신앙의 독특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원통궁던과 장대누각 외에도 관음도와 여타 장관의 탑도를 승선(承宣)한 묘련사 법려들은 거사 중심이라고 하지만 거사 중심으로 머물렀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장대누각에

당대 화계사에 주석한 것으로 보이는 홍월초의 스승 환옹 환진이 묘연사 법려들의 수행정진과 관음보살의 응현의 영험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사가 이곳 화계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근대불교의 한 무대였던 시대를 선도하려는 화계사의 역사적 이력과도 일맥상통한다.<sup>38)</sup>

원통궁전은 상·하로 불 세계의 법장과 발원과 참회 및 대비심주가 활용되는 중생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불의 세계를 밑받침하고 있는 것은 중생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원통궁전은 상하뿐만 아니라 중앙과 좌·우의 대칭의 미로 그 역할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중앙이 부타관음의 본심이라고 한다면 좌우는 중생과 중생의 구제라는 특징이 옹골이 표현되었다. 정수리의 ‘옴’자를 시위하는 ‘남’자나 중생을 구제하는 천룡이 좌우에서 옹호하는 것도 그렇다.

원통궁전의 탑신을 받치고 있는 두 다리[兩足]는 관음의 자비와 중생의 참회로 구성하고 있다. 상·하와 좌·우의 대칭에서 읽을 수 있는 묘연사 법려의 신앙의 결과는 곧 관음의 응현으로 시현된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원통궁전이 보여주고 있는 구조는 불교를 신행하는 이들이 관음이 되어 자신과 타자 구제를 실천하는 전형을 아름답게 탑으로 표현하여 그것을 수지하고 신행하는 그곳을 정토로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한글로 음을 달아 원통궁전을 조성한 것은 그것을 인간 배포하여 대중들이 그것을 모시고 관음보살의 자비를 발원하며 기도하는 신행과 사후에는 극락왕생의 증표(證票)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38) 한상길, 『화계사의 근대사』, 『삼각산 화계사의 역사와 문화』(화계사, 2013), pp.32-65.

## 〈참고문헌〉

- 伽梵達摩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T20)  
 四明知禮 集, 『千手眼大悲心咒行法』(T46)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X74)  
 『靈山大會作法節次』(『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2, 1634)  
 신규탁, 『선문수경 해제』, 동국대출판부, 2012.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연사범려필강관음」조, 1918.  
 이성운, 『천수경, 의궤로 읽다』, 정우서적, 2011/2015.  
 전재성, 『천수 다라니 공덕과 의미』, 이바지, 1997.  
 正觀,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 『韓國佛教全書』 11, 1878, 동국대학교출판부, 1993.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1937.  
 김유광, 「비밀다라니의 현대적 이해」, 『한국불교학』 5, 한국불교학회, 1980, pp.97-131.  
 김윤수, 「高宗時代의 鸞壇道敎」, 『동양철학』 제30집, 한국동양철학회, 2008, pp.47-102.  
 리송재, 「서울 화계사 塔圖 목판의 판각과 유통」, 『미술사 연구』 40, 미술사연구회, 2021.06, pp.245-273  
 박소연, 「19세기 후반 서울지역 신앙결사 활동과 그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8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pp.7-40.  
 서수정, 「19세기 佛書刊行과 劉聖鍾의 『德新堂書目』 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pp.1-325.  
 \_\_\_\_\_, 「19세기 후반 결사단체의 佛書 編刊 배경」, 『한국불교사연구』 11, 한국불교사학회, 2017, pp.298-330.  
 이갑봉,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에 나타난 불교사상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1-185.  
 이봉춘, 「조선시대의 관음신앙」, 『韓國觀音信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77, pp.163~203.  
 이승희, 「조선 말기 經塔圖의 조형적 연원과 제작 배경」, 『미술사연구』 40, 미술사연구회, 2021.06, pp.276-305.  
 차차석,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에 나타난 관음신앙의 특징」, 『보조사상』 39호, 보조사상연구원, 2013, pp.217-252.  
 한상길, 「화계사의 근대사」, 『삼각산 화계사의 역사와 문화』, 화계사, 2013, pp.33-68.

<Abstract>

## **Wontonggungdyeontapdo in Hwagyesa Temple and the Aesthetics of Its Symbols**

Lee, Seong-Woon

This writing considers the aesthetics of Wontonggungdyeontapdo (pagoda iconography) and its symbols displayed in Hwagyesa Temple. In the late 19th century, Wontonggungdyeontapdo were created by the Buddhists practicing their teaching at Myoryeonsa Temple. They practiced reciting the name of Avalokiteśvara (the Bodhisattva Gwaneum), and in response to their devotion, Avalokiteśvara received and shared the teachings, which led to the compilation of “Jejunggamro” and the creation of woodblocks featuring the pagoda iconography.

The main content of “Jejunggamro,” composed of ten divisions, is to liberate sentient beings with the divine power of Avalokiteśvara, which is characterized by self-awareness, the practice of compassion, the convergence between the concept of divine response and that which arises from Buddha’s nature, the convergence of a variety of sectarian ideas, and the practicality of salvation for all sentient beings.

As for the symbolic aesthetics of Wontonggungdyeontapdo, Buddhist thought is visually presented in the shape and form of pagoda iconography. Firstly, the stone roof and the body of the pagoda represent the saint in the upper portion and sentient beings in the lower, respectively. “Om” and “Ram” are displayed at the pagoda’s apex with the prayer of sentient beings below. Both the left and right of its exterior are decorated with celestial dragons. Secondly, in the center, the first letter “cheon” and the final letter “Hum” in the Bohoehyang mantra convey the beauty of symmetry. In addition, the celestial dragons at the left and the right provide protection and empower the Buddhist worshipers to practice good deeds. The penitence of the sentient beings and the mercy of Avalokiteśvara displayed at the bottom represent the symmetry of Buddha’s two legs.

It can be said that the woodblock of Wontonggungdyeontap, carved with the characters of

Hangeul, was created to be used as a token of devotion and death enshrined by the public and prayed for by chanting the holy name of Avalokiteśvara.

• **Keywords**

Wontonggungdyeon-tapdo (the pagoda iconography), Myoryeonsa, Jejunggamro, Samsungam, the Dharma assembly for the heavenly nectar, Jeong Hak-young (Jeongsin, Bowol Jeonggwon), Yoo Seong-jong (Bokwang Bowon)

논문접수일: 2022년 2월 16일, 심사완료일: 2022년 3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10일.
--